

EU 식품낭비 대응 정책¹⁾



▲ 출처: videoblocks.com

유럽연합(EU) 내에서는 연간 생산되는 식량의 20%에 해당되는 8,800만톤의 식품낭비가 발생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1,430억유로로 추정된다. 식품낭비는 윤리적 및 경제적 이슈이지만, 한정적인 천연자원을 고갈시키기도 한다. 식품손실 및 낭비를 감축한다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도움이 됨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는 식품낭비에서 발생)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식품을 확보하여 기아 및 영양불량 퇴치에 기여(EU 시민 4,300여만명이 격일 주기로 양질의 음식 섭취에서 어려움을 겪음)하며, 농가·기업·가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식품낭비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식품낭비의 저감은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을 감소시키는데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접근법을 통해 인간 소비를 위한 식량과 재원을 절약하고, 식품생산·소비의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식품낭비의 예방은 글로벌 경쟁력 증진, 지속가능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활

¹⁾ 이 자료는 EU 홈페이지의 정책분야 소개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원문은 다음을 참고: https://ec.europa.eu/food/safety/food_waste/eu_actions/food-waste-measurement_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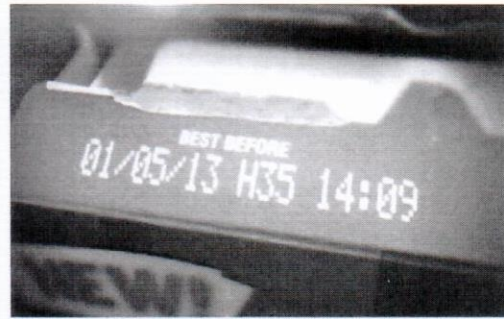
성화를 도모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집행위의 신규 순환경제전략(Circular Economy Package)의 일환이다.

순환경제전략은 순환경제를 위한 EU 행동계획, 식품낭비와 관련된 입법안 및 제안된 활동의 일정을 요약하는 행동계획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5월 30일 채택한 EU 폐기물법 개정안은 식품공급사슬 내 각 단계에서 식품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식품낭비 수준을 모니터링하며, 진전사항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와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발생하는 1인당 식품낭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식품 생산·공급사슬 내 손실을 저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SDG 12.3을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EU 내 식품낭비 관련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집행위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 EU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식품낭비를 일관성 있게 측정하기 위한 공동 EU 방법론을 구체화
- 식품낭비 관련 SDGs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파악하고, 부문간 협력을 촉진하며, 모범관행·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EU 회원국 및 식품사슬 내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플랫폼(EU 식품손실·낭비 플랫폼) 운영
- 식품낭비 및 식품·사료 관련 EU 법규를 명확히 하고, 식량 및 사료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식품기부 및 더 이상 인간 소비



▲ 출처: lifehacker.com

용이 아닌 식품을 동물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조치 추진

- 식품사슬 내 행위자들의 날짜표시 사용 방식 및 이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특히 '유통기한(best before)' 관련 표시사항) 개선

EU 회원국과 이해관계자 간 협력

집행위는 EU 식품손실·낭비 플랫폼을 통해 산업, 소비자, 기타 NGO, 연구기관 및 EU 회원국의 정책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식품 안전을 훼손하지 않고 식품낭비를 줄이는 방법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능한 EU 조치들도 논의하고 있다. EU 플랫폼 이전에는, EU 회원국 전문가 그룹과 식품손실·낭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작업반을 통해 협력이 촉진되어 왔다.

식품낭비 측정

순환경제와 관련해 회원국들은 집행위가 식품낭비에 대한 SDG 12.3의 달성을 지원하고, 식품가치사슬 내 모든 행위자들의 기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식품낭비를 측정하는 공동 EU 방법론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 출처: newerope.eu

- 집행위가 2019년 3월 말까지 식품낭비 측정에 대한 법률을 채택할 것을 요청
- 집행위가 EU 전체의 식품낭비 감소 목표(안)(달성기한은 2030년)이 수록된 보고서를 2023년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
- 식품낭비를 저감하기 위해 '사용기한(use by)'과 '유통기한(best before)'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명시

국가 수준의 식품낭비 방지사업이 확실한 근거에 기반하고, 모범관행 공유를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EU는 식품낭비 수준의 정량화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5월 30일에 채택된 폐기물 기본지침 개정안은 EU 회원국들이 식품공급사슬의 각 단계에서 식품낭비를 줄이고, 식품낭비 수준을 모니터링하며, 진전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다음의 사항들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 일반쓰레기 방지사업의 일부로 식품낭비 방지사업 준비
- 식품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식품기부 및 기타 소비를 위한 재분배를 장려하되, 동물 사료용 소비 및 비식품 제품의 재가공보다 인간의 소비를 우선순위로 선정
- 식품기부 활성화와 같은 폐기물 관리체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법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일반식품법의 정의에 입각해 '식품낭비'에 대한 개념 도입

집행위는 EU의 식품낭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공동 방법론과 EU 회원국들이 관련 성과를 알릴 수 있는 보고형식을 수립하도록 위임받았다. 회원국 전문가 그룹은 집행위가 공동 측정 방법론과 최소 품질 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9년 5월 3일 집행위는 식품낭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공동 EU 방법론 수립에 관한 위임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현재 EU의 기능과 관련한 조약 제290조 (2)항에 따라, 이의제기권을 가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검토를 받고 있다. 만약 별도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위임된 법률은 공포되어 2019년 가을부터 시행될 것이다. 식품낭비 측정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EU 식품손실·낭비 플랫폼의 하위그룹은 동 분야의 집행위 업무를 보다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플랫폼 구성원 간 모범사례 공유를 촉진한다.



▲ 출처: retaildetail.eu

식품기부

식품낭비 방지의 주요 초점은 식품공급사슬 내 각 단계(예: 생산, 가공, 분배 및 소비)에서 잉여 식품이 생기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식품자원의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잉여식품을 사용하는 방법은 안전한 방식으로 재분배하여 소비하는 것이다.

순환경제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집행위는 필요한 이들에게 안전하고 식용가능한 식품의 복구 및 분배를 촉진하기 위해 EU 식품기부 지침을 2017년 10월 채택했다. EU 식품손실·낭비 플랫폼을 통한 협의로 개발된 EU 식품기부 지침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 잉여식품 공급자 및 수령자의 EU 규제 프레임워크(예: 식품안전, 식품위생, 이력추적, 책임법, VAT 등)에 명시된 관련 요구사항 준수 촉진
- 잉여식품의 재분배에 적용되는 EU 회원국 내 규제당국의 동일한 해석 촉진

집행위는 회원국들의 식품기부 관행을 추가로 평가하고 EU 식품기부 지침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8~2020년 동안 시범 프로젝트를 발족시켰다.

이러한 시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어떻게 EU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문서가 준비되었다. 동 문서는 특정 영역의 법률(예: 식품위생, 소비자 식품정보)에 대한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자 EU 식품기부 지침 구조를 따른다. 또한, 국가법(예: 책임, 기타 세금)에 의해 규제되는 사항뿐 아니라 EU법(예: 식품위생, 라벨링, VAT 등)을 적용받는 영역들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이 문서는 EU 식품손실·낭비 플랫폼을 통해 회원국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제조일 표기 및 식품낭비

식품 제조일 표기 '사용기한(use by)' 및 '유통기한(best before)'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는 EU 내 식품낭비를 방지 및 감소시킬 수 있다. 집행위가 2018년 2월에 발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년 EU에서 낭비되는 8,800만톤의 식품 중 최대 10%가 제조일 표기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일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는 가정 내 식품낭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식품 사업자와 규제당국이 공급사슬 내에서 제조일을 어떻게 표기하는 지도 식품낭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품 사업자가 제조 일을 어떻게 정의하는 지(예: 사용기한을 사용할지 유통기한을 사용할 것인지), 시장관행(제품 납품시 소매업자가 요구하는 보관기간), 유통기한(best before)이 지난 식품의 추가적 유통과 사용에 대한 국가법은 모두 공급사슬 내 식품낭비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집행위는 식품 제조일 표기를 단순화하고, 관련 행위자의 이해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안들을 고려하고 있다.

행동 및 이행

농가, 관련 업계, 푸드뱅크, 소비자, 기타 NGO는 물론 EU 회원국, 지역 및 도시가 취하는 조치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식품낭비를 방지하고 전역에 걸쳐 다양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EU 식품손실·낭비 플랫폼 산하 '행동 및 이행' 하위그룹은 다양한 부문의 조직(공공 혹은 민간)과 식품공급사슬의 행위자들이 효과적인 식품낭비 방지 이니셔티브를 식별 및 이행하고, 모범사례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그룹은 관련 정보의 일관성 있는 수집과 정보교환 및 영향분석의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구성원이 식품낭비 방지 이니셔티브 보고에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서식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이니셔티브에서 얻은 교훈을 파



▲ 행동 및 이행 하위그룹 / 출처: eu-refresh.org

악하고, 행위자들이 식품낭비 방지 이니셔티브의 결과 및 영향(예: 경제적 이익)에 대해 보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동연구센터가 개발한 지표(경제, 환경, 사회)를 바탕으로 보고된 이니셔티브의 유효성과 효과성이 평가될 것이다.

또한, 식품공급사슬의 각 단계에서 식품낭비 방지를 위한 주요 권고안을 제안할 것이다. 제안된 권고안은 2019년 EU 식품손실·낭비 플랫폼에 의해 승인될 예정이다.



▲ EU 푸드뱅크 / 출처: independent.co.uk